

2022년 길 위의 배움터 청소년 구례 걷기

구례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청소년 걷기를 준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올해도 역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4박5일 일정으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여순10.19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항쟁의 역사’를 탐구하며 걷기로 했다.

올해 걸음을 주관한 봉성신문, 구례행복마을연구소 그리고 후원한 (사)숲길, 복권위원회, 구례둘레길센터, 전남마을공동체지원사업,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한 화엄사, 연곡사 등과 아이들의 걸음을 응원해주신 구례 어른들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날(8.9)

구례성당(출발식)~구례읍사무소(명협정)~경찰서로터리(박경현동상)~경찰서(안종삼동상)~구례읍주조장(김종철)~이순신 수군재건 출정공원~점심~산책도서관(홍영기교수님강의)~왕재일동상~구례문화예술회관(섬진강수해 그후 2년 사진전)~봉성산(할터공사현장)~저녁~화엄사(마음나누기)

민중덕샘의 낭랑한 목소리로 울려 퍼진 고전문을 통해 아이들의 용기에 힘을 더하고 자연과 생명, 구례를 지킨 선열들에게 아이들과 걷는 이들을 보살피 달라 기도드리며 걸음을 시작했다. 오전은 읍사무소를 둘러 박경현, 안종삼, 김종철, 이순신 수군 재건과정을 돌아보며 그들이 결연히 저항한 역사적인 현장을 상상했다. 점심 먹고는 홍영기 교수님의 동학, 한말의 병과 3.1운동 강의를 통해 그 상상엔 내용을 채워 넣었다. 함께 한 구례여순10.19학습모임, 순천동학모임 등 어른들이 있어 더 든든했다. 그리고 섬진강 수해 사진전과 얼마 전 파헤쳐진 봉성산을 둘러보며 구례의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을 먹고 걸어서 화엄사로 올라가 살며시 잠자리를 청했다.



청소년 기자학교



화엄사 보제루에서 낭비돌기 탐조

셋째 날(8.11)

연곡사 아침~고광순 순절비~차량이동~문척작은다리(뚝방길)~걷기~오봉정사(박문현샘)~차량이동~간문초(여순10.19 학살지)~차량이동~점심~구안실~차량이동~예술인마을(남악사지)~둘레길걷기~참새미골(물놀이)~차량이동~대촌마을(김원자샘):저녁만찬

“너희들은 복 받은 친구들이네” 좋은 추억 세 가지만 있으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며 친구들을 응원하는 공양간 보살님이 지은 아침식사를 한 후 집을 챙겼다. 그리고 고광순 순절비를 찾아 묵념을 하고 종현의 발표를 통해 구례군민이 58년 순절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 서로 나눈 후 차를 타고 문척뚝방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비가 굵어져 우비를 챙겨입고 걷기 시작했다. 월평을 지나 간전쪽으로 방향을 돌리니 뚝방길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다리를 강하게 공격해왔다. 비와 땀과 풀의 공격으로 점점 힘이 들었다. 그러나 강변의 풀들의 녹음과 색색의 꽃, 발작물 열매들이 빗방울에 맞춰 춤을 추는 광경은 너무 아름다웠다. 걸음의 속도와 빗방울의 리듬에 취해 걷다보니 어느새 오봉정사에 도착했다. 수달생태관의 박문현샘이 일부러 마중나와 수달과 오봉정사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감사했다. 차량이동후 간문초에 들러 여순학살지표지석을 확인한 후 상남치즈로 가서 점심을 먹고 구안실로 올라갔다. 한창공사중이었다. 황현샘이 사용한 샘이 묻히고 있었다. 군이 제대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후 예술인 마을로 이동해 둘레길을 걸었다. 오늘이 가장 열심히 걷는 날이다. 비가와서 길이 미끄러워 위험하기도 했다.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침내 참새미골에 도착하자마자 신나게 풀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몸이 시퍼렇게 떨리도록 물속에서 한참을 놀았다. 대촌마을로 이동해 김원자샘과 어른들이 준비한 고기파티에 열광하며 든든한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절이 아닌 집이어서 맘이 정말 편해서 잘 잤다.



걸음 의미 나누기(구례성당)



김종필 선생 조사자료 발표



이순신 수군재건 출정공원 옆

둘째 날(8.10)

화엄사 경내산책~ 보제루(박애숙샘과 낭비돌기 탐조활동)~아침~둘레길 걷기~쌍산제~점심~산책도서관(청소년기자학교1:위대웅샘)~차량이동~석주관성(임세웅샘)~차량이동~저녁~연곡사(생각 나누기)

배고픈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양간으로 달려갔으나 시간착오로 한 시간 뒤에야 식사를 마치고 보제루로 가 낭비돌기(멸종위기종 2급) 탐조활동을 시작했다. 박애숙 선생님은 구조물이 높은 곳을 서식지로 삼는 낭비돌기의 특성과 앞이 넓은 눈, 들판이 펼쳐져 먹이활동 하기 좋은 화엄사의 장점을 설명해주며 쌍안경으로 낭비돌기와 집비돌기를 구별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다. 이후 응원하는 성각스님을 뒤로하고 전남 전교조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7분과 같이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간에 마을주민들이 만든 웅덩이에 시원하게 발을 담그며 놀다 쌍산제에 도착해 선생님들과 헤어졌다. 시원한 냉면으로 더위를 식힌 다음 산책도서관으로 이동해 언론의 역할과 기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역량에 대해 위대웅 선생님께서 강의를 듣고 석주관성으로 달려갔다. 구례 민초들은 왜 의병이 되어 목숨까지 던져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를 찾아 연곡사로 올라갔다.



섬진강 탐사



간문천 여순10.19 표지석 확인



참새미마을 수영장에서

넷째 날(8.12)

대촌마을(아침)~차량이동~난동마을입구~둘레길걷기~산동 수목원입구~차량이동~점심~휴휴 숲(김평부샘과 차와 노래)~차량이동~우리밀체험(저녁식사 만들어 먹기)~청소년기자학교2(신유정샘)

일찍이 난동마을로 이동해 산동까지 넘어가는 둘레길을 걸었다. 둘레길 초반에 우주, 승희와 장은숙샘이 길을 잃었다 트럭을 얻어타고 산길을 올라오는 표정은 하늘을 나는 피터팬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덩어리가 된 우리는 산동수목원까지 단숨에 내달리듯 걸었다. 점심을 먹고 김평부샘 휴휴숲 공간으로 이동해서 차와 노래를 통해 따뜻한 휴식을 취했다. 우리밀체험 수련관으로 온 우리들은 서툰 칼질로 처음으로 카레를 직접 만들어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신유정샘으로부터 기사쓰기를 직접 지도받았다. 주제선정에서 자료조사 방법까지 말이다.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잠자리에 들었다.



김평부 명인과 공연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 직접 카레 만들어 먹기

다섯째 날(8.13)

광의우리밀체험관(아침)~~걷기~차량이동~산동 백인기묘소(위성무샘)~중동초~백순례생가~산수유공원~차량이동~불탄감나무집(여순당시흔적)회관~차량이동~산동 방호정~차량이동~산책도서관(점심)~ 청소년기자학교 3(김종호샘)~ 마무리(걷기평가)

아침에 덜깨 상태로 걷기 시작했는데 점점 몸이 깨어남을 느낀다. 구만저수지 다리가 나올 즈음 차량이 나타나 우릴 신고 백인기 묘소로 이동했다. 위성무샘의 설명을 통해 구례에서 산동이 여순사건의 피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주인공 백인기란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이렇게 같은 국민끼리 죽고 죽어야 했는지, 목숨보다 중요하게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걸음이다. 당시 마을을 불태우면서 생긴 불탄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라고 있는 감나무를 보면서 감나무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산책으로 이동해 김종호샘의 기자학교 마지막 강의를 듣고 걷기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했다. 힘들었지만 걸음을 통해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헌신했던 그분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멋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했다고 말이다.



산동 중동초 관련 여순 이야기 청소년 기사 쓰기 걸음 평가 소감 나누기
 *걸음 참여 학생: 박효범(구례중2), 박종현(구례중2), 이은성(구례중2), 박민규(구례중1), 주민혁(산동중2), 최우주(산동중1), 임승희(산동중1), 정예훈(구례중1), 김보름(구례여중1), 조동윤(북중2), 조승윤(북중3)
 *걸음지원 어른들: 민종덕, 임선자, 박은주, 황정란, 장은숙, 김종례, 김명재, 김원자, 김종호, 정정환, 강영욱, 안상술
 *길위의 배움터 선생님들 : 흥영기, 김평부, 박애숙, 위대용, 신유정, 김종호, 위성무, 박문현, 김명재, 박은주, 황정란
 *걷기를 후원해주신 어른들 : 대나무, 김보현, 성금숙, 김종례, 조성천, 헤미원한의원, 김혜란, 안상술, 은성어머님

황정란 기자

셋째 날, 걸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길위의 배움터 청소년구례걷기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에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2022년 8월 11일 비가 오는 날 구례 예술인마을 남악사지 터에서 출발해 참새미골 수영장까지 둘레길을 걸은 소감을 정리했다.

Q. 걸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나 : 경치가 예뻐서 좋았지만, 벌레와 풀 때문에 짜증이 났다.
 학1: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
 학2: 찻찻했지만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
 학3: 힘들었지만 다 걸었을 때는 흐뭇했다.
 학4: 우비에 있는 테이프가 물에 젖어서 온몸에 조각난 채로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았다.
 학5: 비와 땀이 혼재되어 짜증이 많이 났다.
 선1: 비 오는 산을 걸어가는 게 좋았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발걸음의 리듬과 주변의 푸르른 나무와 하늘 등 풍광이 아름다웠다.
 선2: 4박 5일 걸음 중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Q.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있으면 무엇 때문에 힘들었나요?

- 나 : 비가 와서 미끄럽고 많이 걸어 다리가 아팠다.
 학1: 모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힘들었다.
 학2: 비 때문에 신발이 진흙이 들어가 무겁고 힘들었다.
 학3: 길이 험했다.
 학4: 가랑이 사이가 서로 스치면서 쓰렸는데 계속 걸어야 해서 힘들었다.
 학5: 비가 왔을 때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워서 힘들었다.
 선1: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즐겼고 남악사지와 통일신라의 불상이 있어서 구례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둘레길을 걸어서 좋았다.
 선2: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힘들고 책임감을 느낀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나 : 같이 걷는 형이 핑크색 비옷을 입고 모자를 썼는데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만화 캐릭터 같았다.
 학1: 분홍 우비를 입었을 때 캐릭터 닮은 게 기억에 남았다.
 학2: 친구가 간단한 교육하고 논다고 했는데 걷기를 빠르게 해서 배신감이 들었지만 보람찼다.
 학3: 경사가 심한게 기억에 남았다.
 학4: 철다리 같은거에 빗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구멍에 손가락을 베었다.
 학5: 귀에 물이 들어가서 따가웠다.
 선1: 비가 내리는 숲속은 아주 캄캄하고 무서웠다.
 선2: 산속 나무에 버섯이 자라고 있었는데 같이 걷는 학생이 밟아서 안타까웠다.

비가 오는 남악사지부터 참새미골 수영장까지 가는 둘레길은 험하고 비 때문에 미끄럽고 벌레가 많아 청소년들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경치가 예쁘고 나무도 많아 어른들은 즐기면서 걷는 차이점을 발견했다.

박민규 기자 | 구례중학교 1학년

구례 항쟁의 역사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간 청소년들

2022. 8. 9 시작한 길위의 배움터 청소년 구례 걷기에 학생 참여자들은 단순히 둘레길을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닌 구례의 역사 속에서 피 흘린 항쟁, 그 아픔에 참여한 인물들을 미리 조사한 것을 현장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에 관한 내용과 소감을 취재해 정리했다.

첫날 걸음이 시작되자 읍사무소를 들러 도착한 경찰서 로터리 박경현 동상 앞에서 이은성(구례중2)이 첫 번째로 발표했다.

“1859년 구례 광의면 지상마을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9년 3월 24일 구례 장날에 만세를 외치다 왜병에게 끌려가 8개월 옥고를 치른다. 당시 감옥에서도 선생은 “때려도 좋다, 만세, 만만세!!”를 계속 외쳤다고 한다. 출옥 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23년 8월 2일 생을 마감한다.”(출처: 전남목포신문:강천웅기자 기사 중)

은성은 두 팔 벌려 오늘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선생의 동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평소 지역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발걸음을 옮긴 구례경찰서 안의 커다란 동상의 주인공 안중삼총경에 대해서는 김보름(구례여중1)이 담담하게 발표했다.

“1903년 출생,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보도연맹원 480명을 사살하지 않고 풀어준 구례경찰서 서장으로 이후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정보참모로 근무하였다. 이후 경찰을 떠나 1956년 전남도위원에 당선되었고, 1977년에 사망하였다. 구례경찰서는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 2012년 7월 24일 경찰서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출처: 위키백과)

발표자와 내가 여순사건에서 한국전쟁 당시 구례경찰서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구례군민들을 위해 막걸리를 따라 곳곳에 뿌리며 사죄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모두 숙연했다.

다음은 이순신 조선수군 출정공원으로 이동하여 장군이 백의종군하며 구례를 찾은 상황에서 “모든 구례군민이 환대하여 맞이하고 정성을 다해 모셨다”라고 짧고 굵게 정예훈(구례중1)이 발표했다.

읍내주조장을 만든 구례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가였던 김종필선생에 대해서는 내가 발표를 했다.

“1905년 출생, 일본 와세다 대학, 상해 유학 후 귀국하여 소비조합 운동을 주도, 김택주조장을 인수 구례주조합명회사로 개명, 합명(合名)은 많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모은다는 뜻으로 구례지역 활동가들의 항일운동 근거지로 제공한다. 1927년 조직된 신간회가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와해되자 1936년 금란회(金欄會)를 결성,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까지 앞장선다. 또한 부지1600평을 기부하여 구례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구례 교육운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1945년 만석꾼인 부친이 돌아가시자 3년 상을 치른 후 1947년 7천 석지기의 전답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기도 한다. 우익세력들의 탄압과 한국전쟁으로 월북하여 1984년 돌아가셨다”(출처:봉성신문, 박은주 기자 기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존경스러웠다. 그러나 선생이 월북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분의 사상이나 활동들이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나머지 왕재일을 발표한 주민혁(산동중2)과 고광순을 발표한 박종현(구례중2)의 내용은 본인 기사에 들어가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이런 사전준비와 발표, 그리고 현장에서의 나눔이 살아있는 수업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의미를 경험하길 바란다.

박효범 기자 | 구례중학교 2학년



담양사람 고광순 의병장은 왜 구례에 와서 싸워야 했나?

내가 걷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박효범 추천이었다.

걷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야 하는 과제 중 내가 선택한 것이 ‘구례와 한말의병’이었다. 첫날 흥영기 교수의 강의에서 한말의병 고광순 이야기를 들었다. 담양사람 고광순 의병장이 구례에 와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구례의 유학자 때천 황현 선생에게 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황현 선생은 고광순 의병장이 싸우다 연곡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 그리고 추모 시를 남겼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고 관심이 갔다.

1일 차는 화엄사에서 자고 2일 차는 연곡사에서 잠을 잤다. 3일 차 아침 연곡사에서 고광순 순절비를 직접 찾아가 보니 참 용감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곧이어 나는 자료 조사한것을 순절비 앞에서 발표를 했다. 왜 담양사람

인 고광순 의병장은 연곡사까지 와서 죽었을까? 발표를 끝내니 더욱 궁금해졌다.

그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리산이 거점으로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고광순 의병은 1848~1907년까지 살았던 분이었는데, 1895년 국모를 시해한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그 사건을 계기로 통분을 참을수 없어, 기우만과 도모하여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일본 침략에 항거하였다. 그 후, 구례에서 연곡사를 거점으로 잡고 고제량, 고광수, 박찬덕, 고광훈 등과 1907년 왜적의 포위로 끝까지 최후의 항쟁을 하다가 전사하셨다. 당시 그의 나이는 59세였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그 나이로 의병생활을 했는지 상상 할 수도 없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출처: 두산백과)

박종현 기자 | 구례중학교 2학년

걷기를 통해 나를 알게 된 소중한 시간

반 단톡방에 담임 선생님이 올린 '2022년 길 위의 배움터, 구례 청소년 걷기'를 보고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걷기 당일 전에 구례 역사와 관련된 인물을 선택하여 조사하라는 과제가 떨어졌다. 나는 왕재일이라는 항일 학생 비밀결사조직인 성진회에서 총무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를 조사하였다. 왕재일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조들의 아픔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찾아온 걷기 당일부터 친구들과 우리가 조사했던 구례에 관련된 위인들을 찾으러 다니며 우리 고장 구례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청소년 걷기! 엄청 걸었다 산을타고 평지도 걸으며 구례에 모든 역사를 찾아 다녔는데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몸도 좋아지고 방학 동안 굳어있던 내 몸도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활동이 끝난 후에 숙소에서 마무리 이야기 시간에서 나의 장래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봤는데 나에 대해 한층 더 알게 되어 좋았다. 다음 번에는 자전거로 찾아가는 구례를 기획한다고 하니 다시 참가하고 싶다.

주민혁 기자 | 산동중학교 2학년



산책과 함께했던 우리 동네 영화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요

얼마 전 가을의 문턱에서 작은 영화제가 진행되었다. 바로 산보고책보고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산책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영화제'가 그것이다. 남원 산내성다양성축제 사전행사로 상영되었던 두 편의 영화를 구례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 독립영화를 유통, 배급하는 인디그라운드와의 공동체상영지원사업에 세 편의 영화를 신청함으로써 총 5편의 영화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5일 간 무료로 상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영화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역교육 활성화 동아리 '항꾸네(매천도서관&작은도서관&구례공공도서관)'가 지원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기후위기와 종차별로 인한 비인간동물 대학살, 자본주의와 과소비,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플래닛A(이하루 감독)'와 청소년들의 우정과 성장을 다룬 '종착역(권민표&서한솔 감독)', 노동인권과 성차별 문제를 다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이태경 감독)', 아이를 기르는 여성과 장애, 가족과 치유라는 주제를 다룬 '까치발(권우정 감독)', 세상의 규정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성소수자 드랙 아티스트의 삶을 다룬 '모어(이일하 감독)'. 이렇게 다섯 편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담담히 들여다보며 외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옴니버스 뮤지컬 다큐멘터리 '플래닛 A'는 다소 충격적인 영상으로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영화가 끝난 후 이루어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좀더 명확히 알게 했다.

강은경 기자

【5일+무료상영】

산책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영화제

2022. 8. 30. (화) - 9. 3. (토) / 저녁 7:30

산책(산보고 책보고 작은도서관)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4 / 2층

산책문의 상금 010. 2075. 1400 + 경연금 010. 3089. 9121

<p>다큐멘터리 * 74분 * 이태경 감독 8.30. (화) PLANET A 일과 휴식, 아이와 가족의 만남이 풍요롭게 있습니다.</p>	<p>국영화 * 79분3초 * 권민표&서한솔 감독 8.31. (수) 종착역</p>	<p>국영화 * 118분3초 * 이태경 감독 9.1. (목)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p>
<p>다큐멘터리 * 70분45초 * 권우정 감독 9.2. (금) 까치발</p>	<p>다큐멘터리 * 90분 * 이일하 감독 9.3. (토) 모어</p>	<p>우리가 사는 세상 영화를 통해 만나는 동시대의 주제를 함께 보고 이야기도 나눠요</p>

